

사가에 당뇨소설 연재

약을 제 멋대로 감량 했더니, 망막증 출현!

글 쓴 이 / 다께다 하루오·우가가쿠병원 당뇨병센터장,
일본당뇨협회 이사

등장인물 / 요리다까하루끼선생(가공인물)·지하라다이중앙병원당뇨병센터장
난또까나루(가공인물)·당뇨병 20년차, 혈당관리에 불성실,
치료중단도 여러번, 택시기사, 신장 170cm, 체중 63Kg의 보통체격, 58세



〈지난 줄거리〉

난또까씨는 58세의 남성이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수술을 선고 받는 지경에 이르러 과거를 돌아켜 보기 시작했다. 40세 때 입원 치료를 할 때에는 거의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했었고, 두 번째의 입원 치료에서는 약 복용을 시작해 여러 가지 체중조절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약의 복용 방법을 잘못해서 저혈당 혼수로 구급차의 신세를 지기도 했다.

구급차 소동 이후 다음해 봄, 난또까씨의 장녀인 나루요는 유도로 유명한 국가기관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또한 동생인 나루따로도 고등학교 2년으로 야구부 자리를 획득했다. 한발 더 나아가 아들의 팀이 당당히 현 예선에서 연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루사는 하계휴가를 얻어 응원을 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 팀은 거뜬히 초전에서 승리했으나 아쉽게도 2회전에서는 강팀에게 석재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나루따로는 두 번의 시합에서 홈런과 안타를 연발해 세간의 주모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나루사는 큰 만족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으나 응원 때문에 결국 일주일 간의 휴가를 쓰게 됐다.

휴가가 끝나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해 보니, 출근하자마자 부장의 호출을 받아 “불경기로 회사의 업적이 말이 아닌 이 시기에 일주일이나 휴가를 쓴 것은 말도 안 된다” 는 꾸중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또다시 부장의 호출을 받았는데, 대뜸 “난또까군! 실은 말일세 우리 회사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되었네. 그 유명한 프린세스 호텔 그룹이 남해의 고도인 남대도를 개발하여 일본 유수의 리조트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 우리 회사에 협력을 구해왔네. 천재일우의 기회니깐 자네도 이 프로젝트팀에 참가하여 일역을 담당했으면 하네! 괜찮겠지?” 라는 부장의 갑작스런 제안을 받았다. 어리둥절한 그는 “예? 그러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지요?” 라고 되물었고, “당연히 남대도지, 다음 달 일일부로 사장의 임명통지가 나왔네” 라는 대답을 듣고 말았다.

그날부터 그는 전근을 앞두고 불편한 남대도로 단신부임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퇴사를 해서 전직을

해버릴까 하는 고민의 나날을 보내게 됐다.

그럭저럭 지내는 동안 고객관리를 위해 순회하는 차를 운전하던 중 차의 전방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게 되어 '수면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나이탓인가'라고 생각하며 지나는 길 옆의 안과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다.

진찰결과는 백내장 악화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망막증 징후도 있고, 당뇨병도 있는 것 같은데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요?"라는 따끔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는 뜨끔했다. 사실 그는 이년 전의 구급차 소동 이래 저혈당이 무서워서 "혈당치를 높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찌노 선생께는 비밀로 하고 설포닐요소제는 아침에만,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아침과 저녁으로만 복용량을 감량하고, 혈당치나 당화혈색소가 높아져도 안심하고 지냈다.

그래서 안과의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마찌노 선생에게 엄하게 꾸지람을 듣고 나루사는 "아! 약이란 역시 지시받은 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고 탄식하면서도 "괜찮아! 백내장은 통원하면서 수술치료로 간단히 좋아진다고도 하고, 망막증은 아직 경증이니깐 이제부터 조절을 잘 하면 나올거야"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계속) ✍

요리다까 선생의 조언

당뇨병이라고 진단 받아 5~10년 동안(발병부터 10~15년)에 혈당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당뇨망막병증이 나타납니다. 또 백내장도 빨리 진행·악화합니다.

또한 주인공과 같이 강한 저혈당증상을 처음 체험한 후에는 무서워서 약을 먹지 않는다든지 통원검사나 진찰까지 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다 증상이 악화됩니다. 약이 지나치게 강해서 저혈당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에 맞는 약으로 바꿔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망막증의 종류와 특징(표1)과 망막증의 발병 악화 예방법(표2)을 표로 제시합니다. 마음에 새겨 예방에 힘쓰시다.

※ 망막증의 종류와 특징

종류	증상	검사소견	원인	개선
단순 망막증	없음	①점상출혈 (점막에 나타나는 소량의 출혈) ②경성백반(흰 반점) ③모세혈관류	①혈관확장 ②혈관류 형성 ③혈관약화	있음
증식전 망막증	없음	①연성백반(변화모양의 흰반점) ②망막내혈관이상	혈관폐색 (혈행두절)	없음 (광응고로 안정)
증식 망막증	시력저하 비문증 눈의 아물거림	①신생혈관출현 ②섬유성증식 ③초자체 출혈 ④망막박리	①신생혈관 ②혈관 파탄 ③망막의 증식이나 박리	없음

※ 망막증의 발병·악화 예방법

1. 치료 초기부터 혈당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헤모글로빈 A1c의 목표치 6.5% 미만)
2. 혈당치의 급격한 변동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약 복용을 잊어버리든지 끊지 않도록 합니다.
3. 자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망막증이 없거나 경증일 때는 6개월~1년에 한 번 검사를 해야 함)
4. 증식전 망막증 이후에는 저혈당 발작의 빈발은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5. 증식 전 망막증이 발병하였을 때는 즉시 안과에서 광응고 레이저치료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출처/일본당뇨협회 월간지 さがえ 2010년 1월호 | 번역/이현수 회원